

# “배설물 같은 문자폭탄 무시해야...특정인에 빛 없어”

## 민주 송영길 대표 취임 100일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내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문자폭탄' 논란과 관련, "배설물 처럼 쏟아내는 말들을 언론 기사로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무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은 이재명 예비 후보의 경기지사직 유지 논란과 관련,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이재명 예비후보 지지층으로부터 '장애 비하' 문자폭탄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송 대표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에게 편향된 것 아니냐는 이른바 '이심송심' 지적에는 "당 대표가 될 때 특정 후보 진영의 조직적인 동원을 받지 않고 외롭게 뛰어서 당선됐다. 정치적인 부채가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이낙연 후보 캠프의 설흔 선대위원장이 '경선 불복'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할 문제"라며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한정 네거티브를 쏘는다면 당원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중도층 공략 방안으로는 "경선 과정에

## 대표가 중도 꺼안는 역할 담당해야 열린민주당과 통합 적절치 않아 이재용 가석방 국민 봉사 기회돼야 원팀으로 대선 승리 토대 마련

서는 여든 아든 중도를 향한 발언과 행보가 쉽지 않다"며 "그 기간 불가피하게 대표가 중도를 꺼안는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미애 예비 후보가 제기한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에는 "현재 대선후보 선출 중인 단계에서 통합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열린민주당은 함께 해야 할 당이다.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상의해서 어떻게 열린민주당과 협력해갈지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가석방심의위의 고민을 통해 나온 결론을 존중한다"며 "이 부회장이 국민 여론과 법무부의 특별한 혜택을 받은 셈이 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달부터 국내에서 위탁생산하는 모더

나 백신이 국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역할을 해달라"며 "반도체 활로를 찾는 역할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송 대표는 5·2 전당대회 이후를 돌아보며 "송영길 체제의 출범은 무능한 개혁, 내로남불의 위선을 혁파하는 변화의 출발이었다. 유능한 개혁, 언행일치의 민주당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다"고 밝힌 뒤, "변화와 쇄신의 100일을 넘어, 승리와 화합의 200일로 달려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민심 경청 프로젝트 ▲'공급폭탄' 수준의 주택공급 대책 ▲실수요자 부담 경감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개편안 ▲2차 추경안 처리 ▲K-뉴딜 등 법안 250건 처리 등을 내세웠다. 특히, 그는 "정권교체·정권유지 여론 간 격차가 한때 20%를 넘었지만, 최근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추락하던 당 지지율도 반등했다"며 "재보선 패배 이후 정권교체가 당연시되던 상황에서 벗어나 예측불가의 상황으로 바뀐 것"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과 관련, "공정한 경선 관리와 당 중심의 정책비전 준비, 후보자들 간 단결과 화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가 후보가 되거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도 결과에 승복해서 원팀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토대를 닦겠다"고 약속했다. 당내 '86세대 만행'으로 불리는 송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SNS에 올린 글에서 "86세대가 기득권이라는 말

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저의 반성과 고백이 민주당의 청년정책의 새롭고 확실한 전환이 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열린민주당과 통합론’에 쪼개진 與 주자

### 이재명·김두관 “찬성” 이낙연·정세균 “바람직 안해” 지도부 “경선용 카드”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이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미애 후보가 열린민주당과의 통합론을 꺼내 들었지만,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본경선 주자 6명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발 통합론에 곧바로 호응한 주자는 이재명·김두관 후보다. 추 후보측은 10일 입장문에서 "민주 개혁세력의 분열만큼 나쁜 것은 없다"며 "지

금의 분열이 더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낙연·정세균·박용진 후보는 경선 와중에 합당을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경선용 카드'가 아니냐는 의구심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열린민주당 지지층이 대체로 열성 친문, 조국 전 법무장관 지지자라는 점에서 경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의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논의할 일로, 언젠가 당원들의 의사가 모여질 때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도 SNS에서 "4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사안이지만 추미애 이재명 후보의 합당 접근방식이 낡은 정치문법이라는 우

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후보는 통화에서 "경선용 제안"이라며 "후보 결정 후에 민주당의 역량을 모으는 과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지도부가 거리두기에 나선 것도 이런 기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경선 중 합당 논의의 어려움을 하느냐. 경선용 제안"이라며 "경선 후보선 대응 차원에서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환영하면서도 민주당의 입장 정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강욱 대표는 통화에서 "대선을 앞두고 양당이 힘을 합치자는 이야기에 대해서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합당 논의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정리된 뒤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민주, 이재용 가석방에 “결정 존중”

### 대권 후보들은 찬반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허가 관련해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소영 대변인은 지난 9일 구두는 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내 대권주자들 사이에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입장문에서 "재벌이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고 공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평소 생각"이라며 "국정농단 공모 혐의에 대해 사면 아닌 조건부 석방인 만큼 이재용 씨가 국민 여론에 부합하도록 반성,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 전남 가석방 결정이 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국민께 또 한 번 빛을 쬐다"며 "이제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진국 도약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께 진 빛을 갚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가석방 소식이 알려지자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경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정부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주자들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보수언론의 농간과 대권후보들의 암묵적 동의 속에 법무부가 이재용 가석방을 결정했다.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대에 대한 뜻은 누차 밝혔다. 재벌총수에 대한 0.1% 특혜 가석방은 공정한 일이 아니다"라고 짧게 적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 관계자는 "이러한 방식의 가석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다"며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연합뉴스

## 당정, 임대사업자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유지

### 비아파트 사업자 신규 등록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10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복안이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땅치 않아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 총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 이준석 “당 분열 안돼...후보자 중심 단결해야”

### 휴가 중 구미 방문 소통 행보

닷새간의 여름 휴가에 들어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10일 경북 구미를 방문해 당원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휴가 기간을 이용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상주 교통안전 체험교육센터에서 5일간 일정으로 개인택시 양수 교육과정을 받는 이 대표는 양수 교육이 끝나는 저녁 시간을 활용해 경북지역 당원들과 만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남 가진 상주-문경 당협 주요 당직자 간담회에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당원들의 결속을 강조했다"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당협

위원장)이 전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에 국가의 명운이 걸렸다"는 생각으로 분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어떤 후보자가 되건 (당의 대선) 후보자를 중심으로 단결해달라"고 당원들에게 요청했다.

그는 또 공직 후보 자격시험의 구체적 시행 방안 에 대해서는 "제재를 위한 제도가 아니며 공직 후보 출마자들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내)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면 충분히 통과할 기회가 주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까지 경북 각 지역의 당협을 잇달아 방문해 당원들과의 소통에 나선다. /연합뉴스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분 모십니다.    제30-0949873호

**062)531-3530, H. 010-9229-3530**

MODERN (트윈스틸)    시공 문의

##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 보청기

##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